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제33집 (2008)
pp. 95~116

표현 양상 연구와 연구 방법론

—한국어와 일본어의 대조 연구—

김 은 애
(메이지가쿠인대)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표현 양상 연구와 연구 방법론

- 한국어와 일본어의 대조 연구 -

김 은 애
(메이지가쿠인대)

Kim, Eunae. 2008. Modes of Expression Analysis and its Methods : A contrastive study of Japanese and Korean. *Teaching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33, 95~116.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troduce studies on differing modes of expression in Japanese and Korean. "Modes of expression analysis" aims at studying the entirety of possible linguistic practices and expressions for a given idea or communicational situation in relation to each other. The application of modes of expression analysis in a contrastive study of Japanese and Korean involves taking equivalent linguistic situations and considering what modes of expression would be employed in each respective language. In this paper I will introduce quantitative study which I conducted regarding Korean modes of expression for the nominal of Japanese.

(Meiji Gakuin University)

핵심어: 표현양상(modes of expression), 기준언어(base language),
대조언어(target language), 계량조사(quantitative analysis),
언어장(linguistic fields)

1. 머리말

한국어와 일본어의 대조연구에 있어서, 문법적으로 바른 문장인가, 틀린 문장인가에 대한 <문법적인 적합성>을 주로 문제삼아 왔던 기존의 대조연구에 비해, 한국어와 일본어의 표현에 관한 한일 대조연구는 형태, 통사론적인 유사점이 강조되는 한일 양언어에 있어서 놓치기 쉬운 표현상의 크고 작은 차이점을 밝힐 수 있을 뿐 아니라, 보다 자연스러운 한국어를 습득하고자 하는 일본어 모어 학습자들에게 유익한 학습 정보를 직접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연구분야이다.

그러나 앞으로 한일 양언어의 표현에 주목한 연구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한일 양언어의 표현의 차이를 대상화한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문제점은 연구 결과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적인 연구 방법론¹⁾이 확립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국어는 일본어보다 이러이러한 표현이 더 많이 쓰인다는 지적과 함께, 일본어의 표현A에 대응하는 표현으로 가령, 한국어 B, C, D...라는 복수의 표현들이 가능할 때, 한국어에서는 B라는 표현이 C라는 표현이 더 자연스럽다는 지적도 연구자 본인의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기술이 아니라 보다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해 명시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연구 방법들이 확립될 때, 한국어와 일본어의 표현에 관한 대조연구는 보다 깊이 있는 연구로 발전해 가리라 본다.

본고는 표현에 관한 한일 대조연구 중, 한국어와 일본어의 표현양상에 관한 金恩愛(2003, 2004, 2006)에서 시도한 방법론을 통해 표현 연구의 방법론적 심화를 꾀하고자 한다.

1) 노마 히데키[野間秀樹](2005, 2006ab, 2007)는 한일 대조 언어학에 있어서의 표현양상 연구의 중요성과 방법론의 심화를 역설하고 있다.

2. 한국어와 일본어의 표현양상 연구²⁾

표현양상의 한일 대조연구는 한국어와 일본어의 표현 양상을 대조하는 연구분야이다. 같은 대상, 같은 사태, 동일한 개념을 나타내는 동일한 장면, 즉 동일한 언어장(言語場)³⁾이 주어졌을 때, 일본어에서는 어떠한 표현을 선택하며, 한국어에서는 어떠한 표현을 선택하는가를 고찰하는 연구이다.

예를 들어, 金恩愛(2003, 2004, 2006)는 일본어의 “명사류(nominal)”, “suru(lit. 하다)”, “-sa(lit. -口)”가 각각 한국어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일본어의 A라는 표현에 대응하는 한국어 표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어떠한 조건하에서 그러한 한국어 표현들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고찰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표현양상의 한일대조이다. 이러한 한일 표현양상론의 연구 성과는 다른 연구 분야에 비해 한국어 교육에 직접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성격이 강하다.⁴⁾

한 언어 내부의 표현양상을 연구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언어상에 나타나는 것밖에 연구 대상으로 할 수 없으나⁵⁾, 한국어와 일본어를 대조하는 표현양상의 연구에서는 언어상에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대조라

2) <표현양상>에 관한 정의는 金恩愛(2003)를 참조.

3) 노마 히데키[野間秀樹](1990:3, 43)는 ‘실제 언어적인 ‘장(場)’을 고노[河野六郎]를 인용하며 ‘언어장(言語場)’이라 부르고 있다.

4) 일본어를 모어로 하는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를 사용하면서 느끼는 의문은 일본어의 이 표현은 한국어로는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가능한 표현이 있다면, 어떤 표현이 가장 자연스러운 한국어 표현일까라는 점일 것이다. 한일 표현양상론의 연구는 일본어의 표현 A가 한국어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어떠한 조건하에서 한국어로 B, C, D...의 표현들로 나타나는지를 고찰하는 연구인 만큼 표현양상론의 연구 성과는 한국어 교육 현장에 직접 응용할 수 있을 것이다.

5) 대조연구가 아닌, 한 언어 내의 표현양상을 보는 연구에서는 가령, “의”가 한국어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국어 내의 “의”를 표현양상의 연구대상으로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언어상에 나타나는 “의”밖에 연구 대상으로 할 수 없다. 하지만, “의”가 일본어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는 표현양상의 대조연구에서는 “의”가 일본어로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 것까지도 연구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는 프리즘을 통해 언어상에 나타나지 않는 것까지 연구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⁶⁾

3. 객관적이고 명시적인 표현 연구를 위한 제조건

3장에서는 한국어와 일본어의 표현의 차이를 객관적이고 명시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제조건을 金恩愛(2003, 2004, 2006)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3.1. 언어 자료

1) 텍스트 유형의 한정

한국어와 일본어의 표현의 대조연구에서는 텍스트 유형을 엄격히 한정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한 언어 내에서도 어떤 텍스트 유형에 있어서는

6) 언어를 대조함으로써 비로소 엿볼 수 있는 <언어의 비명시성(非明示性)>에 대해 노마 히데키[野間秀樹(2005: 28-29)]는 다음과 같이 역설하고 있다.

表現様相を可視化する営みは、究極的には、形態の對照にとどまらず、言語が行われる場の中で、いかなる表現のあり方を選択するか、さらにいえば、言語がいかに表現するだけでなく、いかに表現しないかということまで描こうという、いわば言語と表現の根幹を見据えんとする野望に満ちた試みであって、未だ研究の端緒であるとはいえ、この点で既存の對照研究と決定的な一線を畫するものである。言語がいかに描くかはその言語だけを見てもわかるが、いかに描かないかは、ただただ對照研究というプリズムを通してのみ垣間見ることができるのである。いまや日本語學や朝鮮言語學はいかに表現しないかを、自らの課題とすることとなった。(밑줄: 인용자)

표현양상을 가시화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형태의 대조를 넘어, 언어가 행해지는 장(場)에서 어떠한 표현 양상을 선택하는가, 나아가 언어가 어떻게 표현되는가뿐만 아니라, 어떻게 표현하지 않는 것까지 그리고자 하는 이른바 언어와 표현의 근간을 고찰하고자 하는 야망에 넘친 시도이다. 아직 연구의 출발점에 서 있다고는 하나 이러한 점에서 기존의 대조연구와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다. 언어가 어떻게 표현하는가는 그 언어만 봐도 알 수 있으나, 어떻게 표현하지 않는가는 오직 대조연구라는 프리즘을 통해서만 볼 수 있다. 바야흐로 일본어학과 한국어학은 어떻게 표현하지 않는가까지도 스스로의 연구 과제가 되었다. (밑줄, 한국어역: 인용자)

자연스러운 표현이 또 다른 텍스트 유형에서는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어와 일본어의 표현양상을 고찰함에 있어서 텍스트 유형을 소설로 했을 경우와 신문으로 했을 경우, 혹은 드라마나 영화의 시나리오로 했을 경우의 결과는 달리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⁷⁾

표현양상 연구는 어떤 사태를 어떠한 상황, 장면에서 어떠한 방법, 장치들 가지고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연구하는 분야인 만큼, 일본어 A가 한국어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고찰할 때, 어떠한 텍스트 유형에 나타나는 표현인가는 무척 중요하다. 한국어와 일본어의 표현의 대조연구에 있어서는 텍스트 유형을 한정시킴으로써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그러한 연구 결과는 교육의 현장에도 효과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을 것이다. <텍스트유형의 차이>는 다름아닌 <언어장의 차이>이다. 텍스트 유형을 한정시켜 표현양상을 고찰한 것은 '누가 누구를 향해 어떤 언어장에서 말하는가'를 논하는 언어장론(言語場論)⁸⁾의 기초적인 생각에 입각한 것이다.

2) 복수(複數) 언어 자료

한국어와 일본어의 표현에 관한 대조연구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한, 일 양언어의 표현의 차이가 연구자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경험을 통해 기술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다. 한국어에서는 이

7) 이하의 예문은 실제 한국어 신문 코퍼스 자료에서 인용한 예들이나, 복수의 한국어 모어화자가 부자연스럽다고 지적했다.

(1) 고르바초프의 참석과 그 귀추가 압도적인 관심을 모은다.

(2) 무엇보다도 그 프로그램이 압도적인 아름다움으로 보여 주는 것은~

(3) 은행의 방대한 금융 조직, 압도적인 테크놀로지, 강력한 정부를 배경으로~

즉, 신문이라는 텍스트 유형에서는 자연스럽게 쓰이는 문장들이나, 신문이라는 텍스트 유형 밖에서는 똑같은 표현이라도 모어화자에게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다.

8) 언어장론(言語場論)에 대해서는 野間秀樹編(2008)참조.

런 경우, 일본어보다 이러이러한 표현들이 더 많이 쓰이고, 일본어에서는 이런 경우, 한국어보다 이러이러한 표현들이 더 많이 쓰인다는 식으로 학습자에게 정보가 전달되나, 이 역시 교사 한 개인의 체험에 의한 주관적이고 단편적인 정보라 할 수 있다.⁹⁾

金恩愛(2003, 2004, 2006)에서는 기준언어의 연구대상 A가 대조언어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고찰하는 과정에서, 기준언어의 A라는 표현에 대응하는 대조언어의 표현 B,C,D...중, 대조언어의 모어화자가 어떠한 표현을 보다 선호하는지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표현양상의 경향을 얻기 위해, <복수의 언어자료>를 도입했다. 가령, 金恩愛(2006)에서는 작가와 번역가의 개인차¹⁰⁾를 고려해 중복되지 않게 복수의 언어 자료로 기준언어인 일본어의 원텍스트는 20명의 작가가 쓴 20작품, 대조언어인 한국어는 일본어 원텍스트를 20명의 번역가가 한국어로 옮긴 번역 텍스트를 20작품을 사용했다.

9) 만일,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해 한국어와 일본어의 표현의 차이를 지적하고 있다면, 논문에서도 그러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명시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는 학습자에게 더없이 귀한 정보가 될 것이다.

10) 실제, 김은애(2003)의 연구 과정에서 일본어 표현 A에 대해 한국어 표현B, C, D...와 같이 다양한 표현이 나타났을 때, 한국어 모어화자들의 의견은 다양하게 나뉘었다. 이는 표현은 각 개인에 의해 선택되기 때문이다. 한국어 모어화자A는 한국어 표현B가 더 자연스럽다, 그리고 또 다른 한국어 모어화자 B는 자기라면 한국어 표현C를 쓰겠다는 등 동일한 개념을 나타내는 데도 모어화자 각 개인의 표현의 선택은 나뉘었다. 하지만, 모어화자의 대상을 10명, 20명으로 확대해 가는 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표현양상의 경향이 검증되었다. 한 언어내에서 동일한 개념을 나타내는 표현은 다양하게 존재하며 그 선택 역시 각각의 모어화자에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나, 동일 언어를 모어로 하는 화자들이 보다 선호하는 표현의 경향을 찾아낼 수 있다. 한 언어내의 이러한 표현의 선호, 경향을 찾아내는 데는 반드시 복수의 언어자료가 필요하며, 그 언어자료가 양적으로 풍부하면 할수록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3.2. 연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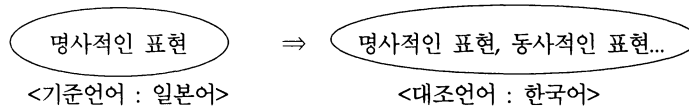
1) 기준언어와 대조언어¹¹⁾

표현양상의 한일 대조연구에서는 일본어 A에 해당하는 한국어 표현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경우, 대조의 기준이 되는 언어로 일본어를 설정한다.¹²⁾ 이 경우, 한국어는 기준언어인 일본어와 대조하는 대조언어가 된다.¹³⁾

기준언어(基準言語): 언어를 대조할 때, 기준이 되는 언어

대조언어(対照言語): 기준언어와 대조하는 언어.

가령, “명사적인 표현”라는 장치(device)를 가지고 표현되는 일본어가 한국어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고자 할 때, 기준언어는 일본어이며, 대조언어는 한국어이다.



<그림 1> 일본어의 “명사적인 표현”에 대응하는 한국어 표현

이렇게 표현양상의 한일대조연구에서 기준언어를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대조언어에서 대응하는 표현이 한 가지가 아니라는 점을 명사화할 수 있으며, 기준언어인 일본어를 모어로 하는 한국어 학습자는 일본어의 표현

11) 기준언어와 대조언어의 정의에 대해서는 金恩愛(2003)를 참조.

12) 어떤 언어현상에 대해 2언어를 대조할 때, 어느 언어를 기준언어로 정할까는 결코 자의적(恣意的)이어서는 안된다. 가령, 일본어의 명사표현에 대응하는 한국어는 명사표현과 동사표현의 2가지로 나타나고, 한국어의 명사표현에 대응하는 표현이 일본어에서 대부분 명사표현으로 나타났다면, 이 경우, 기준언어는 일본어로 설정하는 것이 일본어와 한국어의 표현의 차이를 보다 명확하게 밝힐 수 있다.

13) 한국어 A가 일본어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는 표현양상의 연구에서는 한국어가 기준언어가 되며, 일본어는 한국어와 대조하는 대조언어가 된다.

A가 한국어에서는 B, C, D …등의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하다는 정보를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명시적으로 얻을 수 있다. 그리고 한국어의 표현 B, C, D… 중 일정한 조건하에서 어떠한 표현이 한국어 내에서 더 많이 선택되는가에 대한 <한국어 표현양상의 지향성>에 관한 정보도 학습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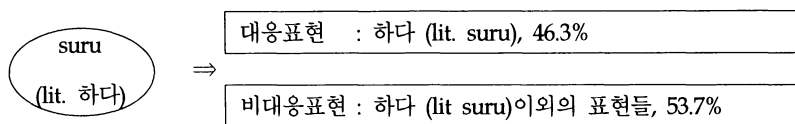
2) 동일한 언어장의 확보를 위한 번역 텍스트

일본어의 A라는 표현이 한국어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고찰하는 표현양상의 한일 대조연구에서는 일본어를 기준어로, 한국어를 대조언어로 설정하는데, 이때 대조언어인 한국어 언어자료는 기준언어인 일본어 원텍스트에 대한 한국어 번역텍스트를 이용할 수 있다.

번역 텍스트는 먼저 원문이 있고 그것을 다른 언어로 ‘바꾼다, 옮긴다’ 혹은 ‘고친다’는 텍스트 생산상의 특성상 어떠한 형태로든 원문의 영향을 피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으나, 표현양상의 대조연구에 있어서 번역텍스트는 동일한 언어장(言語場)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번역텍스트는 거의 동일한 개념, 내용을 각각의 다른 언어에서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살필 수 있는 동일한 언어장을 제공하기 때문에, 가령, 일본어의 표현A를 한국어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을 제공할 뿐 아니라, 한국어에서는 일본어의 표현A를 ‘어떻게 표현하지 않는가’에 대한 물음에도 답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시한다.

3) 대응표현과 비대응표현

기준언어의 일본어A가 한국어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고찰한 결과, 한국어로 가장 많이 나타난 표현을 일본어 A의 대응표현으로 분류하며, 대응표현 이외의 다양한 한국어 표현을 통틀어 비대응표현으로 분류한다.



<기준언어 : 일본어>

<대조언어 : 한국어>

<그림 2> 일본어「suru (lit. 하다)」에 대응하는 한국어 표현

<그림 2>과 같이, 일본어 동사 ‘suru(lit. 하다)’가 한국어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살펴본 표현양상의 한일 대조연구인 金恩愛(2004)에서는 조사대상으로 한 일본어의 ‘suru(lit. 하다)’ 1422예 중, ‘suru(lit.하다)’가 한국어로 대응표현인 ‘하다’로 나타난 예는 658예, 46.3%이며, ‘하다’ 이외의 비대응표현으로 나타난 예는 764예, 53.7%이다. 기존의 한일대조연구에서는 많은 경우, <suru=하다>와 같은 등식하에서 대조를 하고 있으나, “대응표현”과 “비대응표현”과 같은 큰 틀을 설정함으로써, 우선, 일본어 ‘suru(lit.하다)=하다(lit. suru)’와 같은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한국어 교육현장에서 명시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떠한 조건하에서 일본어 ‘suru(lit.하다)’가 ‘하다(lit. suru)’로 나타나는지, 어떠한 조건하에서 ‘하다(lit. suru)’이외의 다양한 비대응표현으로 나타나는지를 명확히 해 갈 수 있다.

이와 같은 한일 표현양상의 연구결과는 일본어를 모어로 하는 한국어 학습자에게, 일본어의 ‘suru(lit. 하다)’가 항상 한국어의 동사 ‘하다(lit. suru)’에 대응하는 것은 아니라는 명시적인 정보와 함께, 어떤경우, 조건하에서 ‘suru(lit.하다)’는 한국어로 ‘하다(lit. suru)’이외의 다양한 표현으로 나타나는가에 대한 학습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4) 표현양상의 전체상을 객관적으로 명시화할 수 있는 계량조사

표현양상의 한일 대조연구에서는 기준언어의 연구대상 “A”가 대조언어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기 위해 계량조사를 도입하고 있다. 계량조사는 연구 대상으로 하는 표현양상을 양적인 측면에서 분포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일 표현양상의 전체상을 보다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화할 수 있다.

가령, 일본어의 “명사적인 표현”이 한국어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고찰한 표현양상의 한일 대조연구인 金恩愛(2004)에서는 계량조사를 통해 다음의 결과를 명시화한다.

<표 1> 일본어의 명사적인 표현에 대응하는 한국어의 표현양상

일본어 명사적 표현 928 예, 100.0%	
한국어 명사적인 표현	한국어 동사적인 표현
779 예, 83.9%	149 예, 16.1%

<표 1>과 같이 계량조사를 통해 일본어는 한국어보다 명사적인 표현을 더 많이 쓰고, 한국어는 일본어보다 동사적인 표현을 더 많이 쓴다는 한일 양언어의 표현양상의 차이를 객관적이고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¹⁴⁾

3.3. 연구 순서

표현양상의 대조연구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표 2> 표현양상의 텍스트 대조연구에 있어서의 연구 순서 모델

1단계	기준언어의 원텍스트 ¹⁵⁾ 의 표현양상에 주목한다.
2단계	기준언어의 원텍스트와 대조언어의 번역텍스트를 대조한다.
3단계	대조언어 내부의 원텍스트와 번역텍스트(2단계)를 검토한다.
4단계	대조언어의 원텍스트(1,2단계의 것)와 대조언어의 원텍스트(3단계)를 검토한다.
5단계	기준언어와 대조언어를 원텍스트로 하는 코퍼스를 이용해 검토한다.

14) 단지 일본어의 명사적인 표현과한국어의 동사적인 표현의 예를 들어, 일본어는 한국어보다 명사적인 표현이 한국어는 일본어보다 명사적인 표현이 많이 쓰인다는 기술은 어떤 의미에서는 연구자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편한 예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으며, 일본어에 비해 한국어가 어느 정도의 비율로 동사적인 표현이 많이 쓰이는지에 대한 물음에도 답하기 힘들 것이다.

15) 번역텍스트에 대해, 원문으로 된 텍스트를 이른다.

일본어의 명사적인 표현이 한국어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고자 할 때, 우선 1단계로는 기준언어인 일본어의 원텍스트의 표현양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준언어를 기준언어로서 우선 검토한다는 절차의 원칙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양언어의 대조에 있어서 대조언어, 즉 한국어에 나타나는 표현의 특징들을 특징 지을 요인이 이미 기준언어 내부에 숨겨져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2단계로는 기준언어의 원텍스트와 대조언어의 번역 텍스트를 대조한다.

1, 2단계에서는 계량조사를 통해 연구 대상의 전체와 부분을 객관적으로 명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4, 5단계에서는 주로 1, 2단계에서 얻은 연구 결과를 보다 신뢰성 있는 것으로 하기 위해 검증조사를 한다.¹⁶⁾

<표 2>에서 제시한 연구 순서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예에 지나지 않지만, 각 단계별로 제시한 관점들은 표현양상의 대조연구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다.

16) 수식어로 쓰이는 일본어의 'ame' (비)를 'sintyo新潮100冊'의 제2차 대전 후 작품을 조사하면,

'ame-no hi' (비의 날)는 42예, 'ame-no/-ga huru hi' (비 의/가 오는/날)는 7예였다. 다른 동사의 가능성을 고려한다 해도 일본어 내부에 있어서는 동사구조보다는 명사구조가 보다 선호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비율일 것이다. 일본어 내부에서, '名詞+no+aru/iru+tokoro-made'의 동사구조와 '名詞+no+tokoro-made'의 명사구조 중 어느 쪽이 더 많이 쓰이는지를 'sintyo新潮100冊'를 보면 명사구조로 나타난 예는 64예로, 동사구조로 나타난 예는 'imo-no aru tokoro made' (고구마가 있는 곳까지)의 1예뿐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적어도 '명사+no+tokoro-made'(lit. 명사+.의 곳까지)라는 구조에 있어서는 일본어 내부에서는 명사구조가 크게 선호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표현양상 연구의 실천: 일본어의 명사 지향 구조와 한국동사 지향 구조¹⁷⁾

4장에서는 3장에서 언급한 연구 방법론에 근거해 한국어와 일본어의 표현의 차이를 객관적이고 명시적인 형태로 지적하고자 시도한 金恩愛(2003)의 연구 결과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金恩愛(2003)는 우메다[梅田博之](1982:35)¹⁸⁾, 임팔용(1995)¹⁹⁾에서 지적된 일본어의 명사적인 표현과 한국어의 동사적인 표현에 대해 연구자의 주관적인 경험이나 내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보다 객관적인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한국어와 일본어의 표현의 차이를 명시화하고자 한 표현양상의 연구이다.

한국어와 일본어를 비교해 볼 때, 동일한 언어장 내에서 거의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 일본어는 한국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명사적인 표현이 많이 쓰이고, 한국어는 일본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동사, 형용사 등 용언을 중심으로 한 표현들이 많다. 또한 한국어에는 일본어의 명사적인 표현에 대응하는 명사적인 표현이 원래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²⁰⁾

金恩愛(2003)는 일본어의 명사지향구조는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 그에 대응하는 한국어의 동사지향구조가 실현되는지를 고찰하기 위해, 기준언어인 일본어의 명사의 표현양상에 주목해, 이하의 3가지를 중심으로 분류했다.

17) 金恩愛(2003)는 소위 체언(nominal)으로 불리는 존재를 명사(noun)로 대표시켜, '명사 지향구조(nominal-oriented structure)'라 부르고 있다. 용언(verbal)에 관해서도 동사(verb)로 대표시켜 '동사 지향구조(verbal-oriented structure)'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18) 한국어에서는 '좋은 날씨다'보다는 '날씨가 좋다'라는 구조가 더 자연스럽다고 지적하고 있다.

19) '표현구조'에 주목해 일본어의 명사표현과 한국어의 동사표현에 대해 고찰한 논문이다.

20) 예를 들면, '暑がり atsu-gari(더위를 많이 타는 사람)' '寒がり samu-gari(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 '怖いもの見たさ kowai-mono-mi-ta-sa(무서운 것을 보고 싶어 하는 심리)'에 해당하는 명사가 한국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 (1) 문장 성분: 주어, 목적어, 수식어, 술어
- (2) 명사의 성질: 명사적인 명사, 형용사적인 명사, 동사적인 명사, 부사적인 명사
- (3) 명사의 어휘적 의미의 비중: 경명사(輕名詞)와 중명사(重名詞)

기준언어의 명사의 성격을 구별하지 않고 대조언어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기준언어의 명사를 여러 관점에서 분류함으로써, 어떠한 조건, 즉, 어떠한 성격의 명사가 어떠한 기능을 담당할 때, 대조언어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金恩愛(2003)에서는 일본어의 형용사적인 명사가 술어로 나타날 경우, 한국어에서는 예외없이 동사적인 표현으로 나타난다. 일본어에서 형용사적인 명사가 술어로 나타나는 경우, 한국어에서는 동사적인 표현이 되기 쉽다는 정보는 일본어를 모어로 하는 한국어 학습자들에게는 유익한 학습 정보가 될 것이다.

이하에서는 일본어의 명사적인 표현이 어떤 조건하에서 한국어로 동사적인 표현으로 나타나기 쉬운지 살펴보기로 한다. 이하에서 제시하는 예문은 金恩愛(2003)을 재인용한 것임을 밝혀 둔다.

4.1. 중명사(重名詞)의 경명사(輕名詞)화²¹⁾

일본어의 명사적인 표현이 한국어에서 동사적인 표현으로 나타나는 중요한 원인의 하나로 일본어의 파생명사와 복합명사와 같은 중명사의 발달을 들 수 있다.

ん?どこ行くの? - うん, ちょっと<渡し物か>あって.

n? doko iku-no? - un, tyotto<watasi-mono-ga> atte.

어? 어디 가? - 응, 좀 전해 줄 게 있어서.

21) 중명사와 경명사에 대해서는 金恩愛(2003:8-9)를 참조.

중명사(heavy noun): 복합명사와 파생명사와 같이 어휘적 의미가 중층화되어 의미적 비중이 무거운 명사.

경명사(light noun): 어휘적 의미의 중층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명사.

watasi-mono-ga	⇒	전해 줄	것(물건) 이
중명사		동사	경명사

일본어의 ‘渡し物(watasi-mono)’ ‘探し物(sagasi-mono)’ ‘忘れ物(wasure-mono)’와 같은 파생명사가 한국어에서는 원래 단일한 명사의 형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동사적인 표현으로 나타나는 타입이다.

長年苦勞をかけた姉の友子にも一刻も早く<恩返しを>したい。(花埋み)
 naganenkuroo-o kaketa ane-no tomoko-nimo ikkoku-mo hayaku <ongaesi-o> sitai.
 오랫동안 고생을 시킨 유코언니에게도 한시라도 빨리 은혜를 갚고 싶다.

on-gaesi	o	suru	⇒	은혜	를	갚다
중명사		기능동사		경명사		실질동사

‘恩返しをする(on-gaesi-o suru)’가 ‘은혜를 갚다’로 나타나는 예를 보면 구조적으로는 양언어 모두[명사+동사]구조를 취하나, 명사와 동사의 어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한국어에 비해 일본어는 어휘의 실질적인 의미를 명사 부분이 담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2 명사구의 경명사화

4.1에서는 형태적으로는 단일한 명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의미가 중층적인 성질을 보이는 파생명사와 복합명사와 같은 중명사가 한국어에서 동사적인 표현으로 나타나는 예들을 보았다.

4.2에서 확인할 ‘명사구의 경명사화’는 형태적으로 단일한명사의 형태를 취하지는 않으나 ‘명사+no+명사’와 같은 형태로 나타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명사구의 의미 비중이 무거워졌다는 점에서는 중명사구(重名詞句)라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중명사구+기능용언’이 한국어에서는 ‘경명사+실질용언’과 같은 동사적인 표현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강하다.

睦月は短いまつ毛がまっすぐにそろっていて, <きれいな顔を>している. (きらきら/9)

mutuki-wa mizikaimatuge-ga massugu-ni sorotte ite, <kireina kao-o> siteiru.

무츠키는 짧은 속눈썹이 가지런하고 얼굴이 예쁘장하다. (반짝반짝/11)

kireina me	-o	site iru	⇒	눈	이	예쁘다
중명사구		기능동사		경명사		실질용언

다음과 같은 예도 ‘중명사구+기능용언’이 한국어에서 동사구조화하는 예라 볼 수 있다.

<いい天氣だな>

< ii tenki-dana >

날씨 참 좋다!

<いい部屋じゃ>ないか. (きらきら/16)

<ii heya-zya> naika.

집이 꽤 좋구나. (반짝반짝/18)

위와 같이 일본어에서는 어휘적인 의미를 명사를 중심으로 표현하는데 반해, 한국어는 일본어에 비해 용언을 중심으로 어휘적인 의미를 표현하는 경향이 강하다.

4.3. 명사의 성질

명사의 성질에 따라 (1) 명사적인 명사, (2) 동사적인 명사, (3) 형용사적인 명사, (4) 부사적인 명사²²⁾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일본어의 명사 표현이 한국어에서 동사표현으로 나타나기 쉬운 타입은 해당 명사가 동사적인 명사, 형용사적인 명사, 부사적인 명사의 경우이다.

22) 명사적인 명사, 형용사적인 명사, 동사적인 명사, 부사적인 명사에 대해서는 김은애(2003:5-8)를 참조.

1) 동사적인 명사

일본어의 명사가 ‘渴き(kawaki)’와 같이 ‘乾く(kawaku)’(마르다) 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 즉 동사적인 명사의 경우 한국어로는 동사로 나타나는 경향이 강하다.

やあ, 最近, 天氣がよくて, <洗濯物の乾きか>早いよね.

yaa,saikin tenki-ga yokute, <sentaku-mono-no kawaki-ga> hayai-yone.

정말 요즘은 날씨가 좋아서 빨래가 금방 마르지.

[수식어]		[주어]		[술어]		[주어]		[수식어]		[술어]
洗濯物 명사	の	乾き 동사적인 명사	が	早い 형용사	⇒	빨래 명사	が	금방 부사		마르다 동사
명사구 [주어]										

일본어의 ‘mugitya-no heri-ga hayai’(麥茶の減りが早い) ‘kusuri-no nakunari-ga hayai’(薬の無くなりが多い) ‘osiroi-no nori-ga ii’(白粉の乗りがいい)와 같이 동사적인 명사를 포함하는 밑줄 친 명사구는 한국어로 ‘보리차가 금방 줄어든다’ ‘약이 금방 없어진다’ ‘분이 잘 먹는다’와 같이 통사적인 변화를 동반하며 동사적인 표현으로 바뀐다.

2) 형용사적인 명사

‘isogashi’(바쁘다) ‘siroi’(회다)와 같은 형용사에서 파생한 형용사적인 명사의 경우 한국어에서는 동사적인 표현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강하다.

<忙しき>どんなに増しても彼女の治す力は減りはしない. (とかげ/37)

<isogasisa-ga> donnani masitemo kanozyo-no naosu tikara-waheri-wa sinai.

아무리 바빠져도 그녀의 치료 능력은~(도마뱀/37)

その<シャツの白さが>, 内藤の顔色の悪さをさらに浮き立たせているように感じられた. (一瞬の夏)

sono <syatu-no sirosa-ga>, Naitoo-no kaoiro-nowarusa-o sarani ukitatasete iruyooni kanzirareta.

그 하얀 셔츠가 나이토의 나쁜 안색을 한층 더 두드러지게 하는 것 같았다.

シャツ	の	白さ	が	⇒	하얀	셔츠	가
명사		형용사적인 명사			형용사	명사	

3) 부사적인 명사

‘mada’(아직) ‘itumo’(늘, 항상)과 같이 부사적인 성질이 강한명사는 한국어에서 동사적인 표현으로 나타난다.

食事, <まだの>人!

syokuzi <mada-no> hito!

식사 아직 안 한 사람?

カウンターごしに<いつもの司書>が訊き, ~ (冷静とR/52)

kauntaa-gosini<itumo-no sisyo>-ga kiki

카운터 너머에서 늘 보는 사서가 물어, ~ (냉정과R/49)

이상에서와 같이 기준언어인 일본어의 명사를 그 성질에 따라 하위분류함으로써 어떠한 성질의 명사일 때 한국어에서 보다 동사적인 표현으로 나타나기 쉬운가를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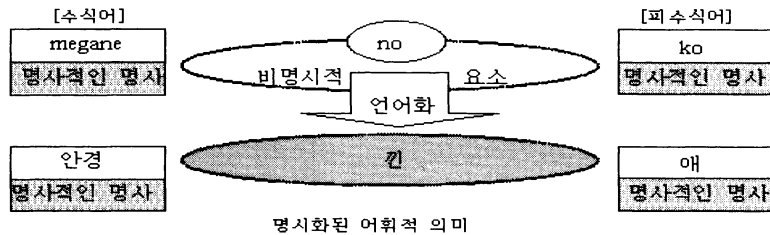
4.4. 비명시적 요소의 언어화

디스코스, 텍스트 등 언어장과 관계되는 일본어의 비명시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명사적인 표현을 한국어가 언어화하고자 함으로써 야기되는 한국어의 동사적인 표현이다.

昨日の<めがねの>子, 覚えてる?

kinoo-no <megane-no> ko oboeteru?

어제 안경 낀 애 기억나?



수식어인 명사가 신체의 부착물로 피수식어가 인간명사인 경우, ‘カーディガンの子’(lit. 가디건의 애), ピアスの男’(lit. 귀걸이의 남자)와 같은 일본어의 명사표현은 한국어에서는 ‘가디건 입은 애’ ‘귀걸이 한 남자’와 같이 동사표현으로 바뀐다.

4.5. 명사종지문과 지정사종지문

金恩愛(2003)의 일본어의 명사표현이 문장성분별로 한국어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고찰한 결과를 보면, 주어, 목적어에서 쓰인 일본어의 명사표현이 한국어에서 동사표현으로 나타날 비율이 각각 9.6%, 7.2%인데 비해, 술어에 나타난 일본어의 명사표현이 한국어에서 동사표현으로 나타날 비율은 38.9%로 높다는 지적이 있다.

會葬者は鳥飼を除けば總勢<十二名>. (戀/8)

kaisoosya-waTorikai-o nozokeba soozei <zyuunimei>

참석자는 도리카이를 제외하고 모두 12명이었다. (사랑/10)

忘れてしまったことさえ思い出さないのが<普通>. (冷靜と情熱/11)

wasuresimatta kotosae omoi dasanai-noga <hutuu>

잊었다는 것조차 모르는 게 보통이다. (냉정과 열정/11-12)

‘十二名(12명)’‘普通(보통)’과 같이 명사 종지문은 한국어에서는 ‘명사+지정사’와 같이 지정사를 동반해 나타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경향은 일본어 원텍스트와 한국어 원텍스트 1000문장에서 나타난 명사종지문의 출현빈도를 통해서도 한국어에 비해 일본어가 명사표현이 많이 쓰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²³⁾

명사 종지문의 출현빈도	일본어 92문장 (1000문장 중)
	한국어 46문장 (1000문장 중)

‘명사+지정사’로 끝나는 일본어 술어문의 경우, 한국어에서는 동사적인 표현으로 나타나기 쉽다.

<雨だから>ご機嫌うかがい, と言ってわらう. (冷靜R/61)

<ame-dakara> gokigen ukagai, to itte warau.

비가 오길래 기분이 어떨까 하고, 라며 웃는다. (냉정과R/57-58)

戀がおもしろいなんて, そりゃ<初耳>だ. (A2Z/63)

koi-ga omosiroinante, sorya<hatumimi>da

사랑이 재밌다니, 그런 소리 처음 듣는군. ((A2Z/64)

이상과 같이 일본어의 명사적인 표현이 어떤 조건하에서 한국어에서는 동사적인 표현으로 나타나기 쉬운지를 표현양상의 한일 대조연구를 통해 살펴보았다.

23) 金珍妮(2002:77-83)는 “sensei, dare?”(lit. 선생님, 누구?), “onamae-wa?”(lit. 성함은?)와 같이 술부(述部)를 동반하지 않고 발화를 종료하는 ‘술부 없는 발화문’이 일본어는 한국어에 비해 2배 이상의 비율로 출현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金珍妮(2006:111-154)의 “비술어문”(非述語文) 참조.

5. 마무리

본고는 한국어와 일본어의 표현에 관한 대조연구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 연구 방법론의 확립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보다 객관적이고 명시적인 형태의 표현연구를 모색하고 있는 金恩愛(2003, 2004, 2006)의 연구 방법론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金恩愛(2003)의 연구 사례를 통해, 연구 방법론의 유효성을 검토해 보았다.

한국어와 일본어의 표현에 관한 대조연구는 일본어 모어화자가 한국어를 사용할 때 지나는 의문들——한국어로는 이런 경우, 이런 장면에서 뭐라고 하면 될까? 일본어의 이 표현은 한국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어떤 표현이 더 자연스러운 한국어 표현일까?——에 가장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그리고 명시적으로 답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 분야라 할 수 있다.²⁴⁾

하지만, 한국어와 일본어의 표현양상을 고찰하는 한일 대조연구는 아직 그 출발점에서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장 큰 이유로는 한국어와 일본어의 표현에 관한 대조연구가 한일 대조연구에 있어서 하나의 연구 분야로서의 명확한 자리매김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연구의 출발점을 ‘suru(lit. 하다)=하다(lit. suru)’로 하는 한일 대조연구와, 일본어의 ‘suru(lit. 하다)’가 한국어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혹은 한국어의 ‘하다(lit. suru)’가 일본어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고찰하는 표현양상의 한일 대조연구는 그 연구 목적을 달리하는 연구 분야임을 연구자 자신이 보다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국어와 일본어의 표현양상의 대조연구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인지를 명확히 인식했을 때,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연구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심도있는 연구 방법론이 다방면에서 구축되리라 본다.

24) 유타니 유키토시[油谷幸利], 金恩愛(2007)는 표현양상의 연구 결과를 ‘보다 자연스러운 한국어 표현을 배우자’라는 항목을 중심으로 교재에 일부 도입하고 있다.

참고문헌

- 林八龍(1995), 「日本語と韓國語における表現構造の對照考察—日本語の名詞表現と韓國語の動詞表現を中心として」『宮地裕・敦子先生古希記念論集 日本語の研究』東京：明治書院
- 梅田博之(1982), 「朝鮮語の語彙Ⅱ 意味に關する問題」『講座 日本語學12 外國語との對照Ⅲ』寺村秀夫他編 東京：明治書院
- 生越直樹(2002), 「3 日本語・朝鮮語における連体修飾表現の使われ方「きれいな花!」タイプを中心に」『シリーズ言語科學4 對照言語學』生越直樹編 東京：東京大學出版會
- 龜井孝・河野六郎・千野榮一編著(1996), 『言語學大辭典 第6卷 術語編』東京：三省堂
- 金恩愛(2003), 「日本語の名詞志向構造(nominal-oriented structure)と韓國語の動詞志向構造(verbal-oriented structure)」『朝鮮學報』, 第188輯, 天理：朝鮮學會
- 金恩愛(2004), 「日本語の「する」は韓國語でいかに現れるか——表現様相の對称構造と非對称構造——」東京外國語大學大學院修士論文
- 金恩愛(2006), 「日本語の「-さ」派生名詞は韓國語でいかに現れるか——翻譯テクストを用いた表現様相の研究——」『日本語教育』129号, 東京：日本語教育學會
- 金珍妮(2002), 「日本語と韓國語における談話ストラテジーとしてのスピーチレベルシフト」『朝鮮學報』第183輯 天理：朝鮮學會
- 金珍妮(2006), 「日本語と韓國語の談話における文末の構造」東京外國語大學大學院博士論文
- 宋美玲(1998), 「現代日本語と現代韓國語における時間表現の對照研究——「過去の事象」における話者の時間解釋を中心に——」『第149,150回朝鮮語研究會發表要旨集』東京：朝鮮語研究會
- 野間秀樹(1990), 「現代朝鮮語の名詞分類——語彙論・文法論のために」『朝鮮學報』135輯 天理：朝鮮學會
- 野間秀樹(2005), 「韓國と日本の韓國語研究——現代韓國語の文法研究を中心に——」『日本語學』2005年7月号. Vol.24. no.8 pp.16-31 東京：明治書院
- 野間秀樹(2007), 「動詞をめぐる」『韓國語教育論講座』野間秀樹編 第1卷 東京：くろしお出版
- 野間秀樹(2008), 「言語存在論試考序説Ⅰ——言語はいかに在るか——」『韓國語教育論講座』野間秀樹編 第4卷 東京：くろしお出版

- 油谷幸利(2005), 『日韓對照言語學入門』 東京:白帝社
- 油谷幸利(2006), 『韓國語實力養成講座2 間違いやすい韓國語表現100 中級編』 東京:白帝社
- 油谷幸利・金恩愛(2007), 『韓國語實力養成講座1間違いやすい韓國語表現100 初級編』 東京:白帝社
- 김은애(2007), ‘일본어 모어화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의 과제: 표현양상 연구의 심화’,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제17차 국제학술대회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학-교육과 연구의 방향성 정립”, 서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발표요지.
- 노마히데키[野間秀樹](2006a), ‘대조언어학: 한국어와 일본어 —— 한국어 교육을 위하여 ——’, “제1기 한국어 교원양상과정 일본인을 위한 한국어 교수법 이론과 실제”, 일본: 한국 문화원.
- 노마히데키[野間秀樹](2006b), ‘한국어 교육의 원리론으로서의 대조언어학적 접근-한국어와 일본어를 중심으로-’,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제16차 국제학술대회 한국어교수-학습 방법론의 재정립”, 서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발표요지.
- 서울大學校 語學研究所 黃燦鎬, 李李順, 張奭鎭, 李吉鹿(1988), “韓日語 對照分析” 서울: 明志出版社.
- 宋美玲(1995), ‘韓・日兩國語에 나타난 表現構造의 一考察 ——『雪國』의 翻譯文을 中心으로-’, “里門論叢” 第15輯. 서울: 韓國外國語大學校 大學院.

김은애

1518 Kamikurata-cho, Totsuka-ku, Yokohama-shi 244-8539, Japan

Lecturer, Institute of the Center for Liberal Arts

Meiji Gakuin University

E-mail : kim.eunae.kr@gmail.com

논문 투고 일자: 2008. 10. 30

논문 심사 일자: 2008. 11. 26

게재 확정 일자: 2008. 12. 10